

어명소 제2차관, “화물운송산업 정상화, 운송업계가 앞장서야”

- 13일 물류업계 간담회 개최...업계 의견 수렴·물류산업 지원 방안도 논의 -

□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13일(월) 오후 국토발전전시관(서울 정동)에서 물류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물류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, 물류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.

* 통합물류협회,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,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연합회 등 물류 사업자단체 및 CJ대한통운, 롯데글로벌로지스, 쿠팡 등 주요 물류기업 참석

○ 어 차관은 “물류산업의 핵심인 화물운송산업은 그간 지입제 등 전근대적 운영 방식과 개인 차주 중심의 영세하고 경직된 구조 등으로 인해 물류산업의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”면서,

○ “일하지 않는 운송사를 시장에서 퇴출하여 지입제로 인한 폐단을 바로 잡고, 화주 자율 계약은 보장하면서 화물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등 화물 운송산업의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으로, 이 과정에서 물류업계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”고 강조하였다.

□ 이 자리에서는 「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(2.6)」에 대한 물류업계의 의견수렴 뿐만 아니라, 물류산업의 혁신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.

○ 물류업계는 물류시설 확충 및 스마트화를 위한 정부 투자 확대, 세제 지원과 함께 현장 인력 및 화물차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요청하였다.

□ 이에, 어 차관은 “3월말까지 물류산업의 혁신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”고 약속하면서, “화물운송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업계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”고 밝혔다.

2023. 2. 13.

국토교통부 대변인